

33장. 야곱과 에서의 만남과 갈라짐

야곱이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압박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야곱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을 때에 이겼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어서 형 에서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으며,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압박 강의 씨름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된 것을 이러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에서와의 만남 (33:1-4)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야곱이 해석한 것처럼 그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33장에서 우리는 야곱을 크게 환영하는 에서를 본다. 에서가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에서에게도 나타나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추측을 할 필요는 없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형제와의 관계도 풀어졌다는 사실이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을 때(32:9-12),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은 그대로 두신 채로 다만 에서에게서 야곱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력함과 거짓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심으로써 응답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긴다는 진리를 배운 야곱은 이제 식구들 앞에 나아가면서 형 에서에게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절하였다. 그는 형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낮춘 것이다. 그러자 에서는 1) 달려와서 2) 맞아서 안고 3) 목을 어긋맞기고 4) 입 맞추었고 5) 함께 울었다. 다섯 가지의 동사는 에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야곱을 마음에서부터 환영하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에서 편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영접을 하자 야곱도 함께 울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가 서로를 용서하면서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

2. 가족 소개 (33:5-7)

야곱은 형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차례로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 역시 자신을 낮추고 형을 높이는 모습이다. 야곱은 인사를 하는 것이나 말하는 일에서 매우 겸손하게 하였다.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자기는 ‘주의 종’으로 낮추었다.

여기에서 자녀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하였다. 언약의 자녀를 많이 주신 것은 자손이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하신 약속이 실현될 전조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야곱은 ‘복’이라는 말을 피하고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것은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과 연결된다.

3. 야곱의 선물 (33:8-11)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오는 길에서 만난 가축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지난날의 일에 대하여 형에게 용서를 구하였다(32:5, 33:8, 10, 15).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은혜인데 자신의 잘못을 덮고 은혜를 베푸는 표시로 선물을 받아 주기를 간청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이 선물을 받는 것이 동생에 대한 원한을 풀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간청한 것이다.

그러자 에서는 자신에게도 넉넉한 재물이 있다고 밝혔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는 아마도 농사나 목축이 아니라 칼을 의지해서 그러한 부를 얻었을 것이다(27:39-40).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간청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과 지금 에서를 대면한 것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압박 강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은 발꿈치를 잡고 사는 방식을 포기한 것이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4. 야곱이 에서와 갈라짐 (33:12-17)

야곱이 에서에게 육신적인 방식으로 형의 복을 가로챈 사실을 사과하며 예물을 받을 것을 강권하자 에서는 그 예물을 받았다. 그것을 받는 것은 야곱을 용서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야곱의 사과를 받는 점에서 에서는 족장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야곱에게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였다. 야곱은 아직 어느 곳에 가서 살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자신의 사는 곳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은 상당히 큰 호의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자식과 가족이 에서를 빨리 따라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혼자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고 하면서 에서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였다.

5. 세겜과 엘-엘로헤-이스라엘 (33:18-20)

숙곳은 브니엘의 북쪽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따라가려면 남쪽으로 가려고 했을 것이지만 그는 오히려 북쪽으로 갔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여행을 한 야곱은 숙곳에서 집과 우리를 짓고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후에는 유서 깊은 세겜에 도착하여서 마치 아브라함이 땅을 샀듯이 자신도 믿음으로 땅을 한 조각 샀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세우고 그 단의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그 단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묵상과 실천:

하나님의 얼굴과 에서의 얼굴, 세겜에 머문 야곱

1. 하나님의 얼굴과 에서의 얼굴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두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막으시고 식구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실 때에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지만, 야곱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승리했다고 인정해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분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지만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엄위뿐 아니라 자비로 나타나신 것이 야곱에게는 생생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야곱에게는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살려 주신 것처럼 에서도 20년 전의 살기등등한 모습은 사라지고 잘못된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은혜를 얻은 것처럼, 형에 대해서도 자신을 낮추었을 때 형의 자비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새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 겨루어 이기면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의 비슷한 것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됨을 배운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압복 강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은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엄위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도 엄위 대신에 은혜를 보았다. 야곱의 진정된 회개는 에서가 ‘그의 복’을 ‘소제’로 받음으로써 확정되었다. 잠언 16:7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2. 세겜에 머문 야곱: 평안함과 야곱의 둔감성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세겜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자신의 하나님’으로 불렀다.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온 것과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엘 서원의 내용 전반부를 이루게 하신 것을 나타낸다(28:21). 따라서 야곱은 후반부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베엘로 올라가야 했다(28:22).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오래 머물렀다.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거나 단을 쌓고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믿음으로 한 행위였다. 그러나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베엘에서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리로 올라가야 했는데, 그는 베엘을 지척에 두고서도 너무 오래 다른 곳에 머물렀다. 혹시 그는 비슷하게 했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세겜에서 베엘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야곱은 베엘로 가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세겜과 베엘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둔감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다나의 일로 매를 맞고서야 베엘로 올라갔다.

33장 익힘 문제

1.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의 가족은 어떤 순서로 에서에게 나가 절했습니까? (1-7절)
2. 1)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몇 번이나 자신을 땅에 굽히며 절했습니까? (3절)
2) 야곱은 에서 앞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낮춰 불렀습니까? (5절)
3.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을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까? (10절)
4. 야곱이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릿간을 지은 곳은 어디입니까? (17절)
5.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목의 아들들에게서 샀는데 얼마에 샀습니까? (19절)
6.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부른 하나님의 성호는 무엇입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18-20절)